

“일자리 늘리고 문화 박탈감 없어야 청년 돌아와”

‘전남 청년의 목소리’ 발대…道, 60명 위원들과 첫 만남

교육·여건 개선, 일자리창업 등 분과…1년간 의견 제안

광주·전남이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로 고민하는 광주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젊은 인재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고, 되돌아올 것인지를 민선 6기 성공의 평가 기준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개치 프레이즈로 내건 전남도는 29일 ‘전남 청년의 목소리’ 발대식을 갖고 지역 청년과의 소통 통로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60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석해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학생 26명, 취업준비생 16명, 직장인 11명, 자영업 7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 청년위원들은 앞으로 교육·

선·여건개선·일자리창업 분과 등에 배정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년간 의견을 내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의 직접 소통 대상은 각 분과에 참여한 전남도 각 실·과 담당자들로, 1차로 이들이 의견을 받아 정책기획관실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올 상반기 전남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주민등록인구 190만5242명

가운데 20~30대는 모두 43만3337명으로, 22.74%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37만9301명(19.9%)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은 떠나고 고령자는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구비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 성장동력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청년위원으로 참여한 박해진(22)양은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적 박탈감이나 서비스의 미흡, 청년만의 공간 부족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거르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청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1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정책 마련, 집행, 평가 등 과정의 참여와 성과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승혁(28) 순천대총학생회장은 “위원

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미지수”라며 “지금 청년들의 여건은 안 좋지만,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각별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전남 운명의 한 조각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며 “도정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동참해야 하며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서슴없이 전달해 달라”고 격려했다.

전남도는 일단 분기별로 한 차례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자체 청년정책 개발에 청년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소통 방식도 서면, 대담, 화상회의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상반기중으로 청년 종합대책도 내용을 계획이다.

／윤현식기자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광일춘추’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모시고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칼럼 ‘광일춘추’의 진용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강원일보, 경남

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7개 신문사는 각계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박경훈 교수



김도연 소설가



김국 교수



정양 시인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경북대 조경학과 졸업 ▲환경문제 전문가

◇김도연 소설가

▲강원일보 신춘문예(1991년) ▲경인일보 신춘문예(1996년) 당선

◇김 옥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미국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

▲동국대 국문과 졸업 ▲아름다운작가상·백석문학상 수상

光州日報社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2만8천달러

(GNI)

IMF “내년 3만달러 넘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8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8000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2만6205달러보다 1800달러(6.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월 2일~12월24일 평균 원·달러 환율 1052원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는 2950만원 가량이다.

1인당 GNI는 2010년에 2만2170달러로 2만달러대로 올라선 뒤 5년째 2만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평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3만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인당 GNI를 추정하는데 사용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이고, GDP 디플레이터는 1.3%였다. 원·달러 평균 환율 추정치는 한국은행과 같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IMF는 내년에는 1인당 GDP가 3만807달러로 오르면서 세계 주요국 중 24위로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광산구 선암동 유적등 8건 보존조치 해제

문화재청, 광주읍성유허 포함

문화재청은 29일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유적을 비롯해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19일 광주를 비롯한 3개 광역 시·도의 보존조치 유적 9건에 대해 자연·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검토와 관리 현

황을 점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에 있는 조선시대 광주읍성유허(光州邑城遺墟)는 이미 광주 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해제됐다. 또 인근 녹지공원 내 재현돼 있는 선암동 유적과 인근 녹지공원 내 이전 복원된 평동 유적은 보존 평점에서 유적의 가치와 보존 상태 등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해제조치 됐다.

／김정인기자 kki@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 시·군 정책간담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전남도와 전남 시·군 정책간담회가 29일 순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해 22개 시장·군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일방통행로에 안내 신호등 설치해 사고 줄이자”

광주시 ‘청년 아이디어 콘퍼런스’ 10개팀 수상…조선대팀 ‘대상’

운전자라면 한번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던 아찔한 경험이 있다. 잇을 만 하면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를 노린 보행 사기단의 행태가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조선대학교 재학생 4명으로 구성된 ‘Creative Action’팀은 이 같은 일방통행로의 역주행 운전행태에서 착안, ‘일방통행 안내신호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내용을 담은 아이디어를 광주시에 제안, 시정 개선안으로 채택됐다.

광주시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아이디어

콘퍼런스’에서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국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4 청년 아이디어 콘퍼런스’를 개최한 결과, 총 115개 아이디어가 접수돼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상(1팀)과 금(2팀), 은(3팀), 동상(4팀) 등 10팀을 시상했다. 전문심사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현장심사단은 제안팀별 발표와 질의응답 등의 평가를 거친 뒤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한 10팀 중 조선대 ‘크리에이티브 액션’팀은 ‘일방통행 안내 신호등’ 아이디어가 대상에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이 팀은 일방통행로 도로 표지판 및 안내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불빛형태(레이저빔)의 기능을 담은 일방통행 신호등의 설치를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금상을 받은 전남대 ‘러버담’팀은 ‘범죄 잡는 푸른빛’이라는 제목으로, 색채에 민감한 인간의 심리적 효과를 이용해 범죄 다발 지역 곳곳에 푸른 빛을 내는 ‘LED 등’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조선대 ‘조선여대팀’은 ‘문화도시를 달리는 문화버스’를 제안해 금상을 받았다. 이 팀이 내놓은 ‘문화도시를 달리는 문화버스 SOME’은 혼잡하지 않은 시내버스 내에서 인디밴드 공연 등 문화공연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곧바로 광주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부터 다소 생뚱맞은 아이디어까지 20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신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남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 · 無출혈 · 無봉합 · 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백남광주안과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소질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십시오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혀 문외한이신 자제님 안배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h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